

#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sup>1)</sup>

*A Scheme for Prosocial Marriage and  
Child Values of Korean Primary and  
High School Students*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과 자녀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규모 양적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초·중등학생의 가치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므로, 결혼과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청소년의 집단별·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은 성인 세대의 가치관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가치관은 그 형성이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므로 결혼과 가족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 1.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대체수준에 도달한 후 계속 빠르게 감소하여 2003년과 2005년의 합계출산율이 각각 1.19명과 1.0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출산수준의 감소와 함께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의 노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현상 변화의 원인으로 경제사회

현상의 변화를 비롯하여 혼인과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가치관은 정부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의 수행이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수행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 연령의 상승, 미혼인구의 증가, 이혼의 증가,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가치관의 변화는 개별적인 지원이나 단

1)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사회협동연구인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중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연구」(김태현 외, 2006)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이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손준중, 김지경 교수, 박강용 박사, 그리고 김혜환 교사에게 감사한다.

기간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 출산억제를 위해 소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장기적인 목표 하에 지금부터 초·중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sup>2)</sup>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과 자녀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출산 주요원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장래 출산력 회복을 위한 초·중등학생 가치관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자료에서 직접 얻기 어려운 현재 초·중등학생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이 형성된 원인과 전망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대규모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초·중등학교 132개교를 표집하고, 초등 5학년 이상 각 학년에서 한 학급씩 표집하여 학생 11,322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른 부분의 요구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실시<sup>3)</sup>하였으며, 그 자료 중의 일부를 이 연구를 위하여 활용하였다. 이어서 초·중등학생의 가치현황과 그 원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2.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가치관의 특징

청소년은 의존, 불안정, 미성숙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아동기에서 독립, 안정, 그리고 성숙을 특징으로 하는 성인기로 나아가는 이행단계에 있다. 가치관은 청소년기에 형성되고 체계적으로 발달하며, 특히 청소년 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개인의 신념으로 자리 잡는 시기이다. 성인으로서의 삶은 청소년들이 이 시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가족과 결혼에 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것들은 성인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치의 다양성이다. 가치는 개인의 경험적 산물이다.<sup>4)</sup>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가치 판단의 준거가 모순되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경쟁하는 가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가치 판

단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요건이다.

둘째는 가치의 안정성이다. 가치는 비교적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평가의 내적 기준이다. 가치관은 일생 동안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sup>5)</sup>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의 특징은 성인 세대에 비하여 비교적 유동적이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교사와 부모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유의미한 타자의 영향이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는 가치의 책무성이다. 가치는 책무성과 갈등회피 등 선택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sup>6)</sup>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고 한결같이 일관되게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행위자들은 대부분 경쟁하는 가치들 중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가치에 주목하게 되고, 그러한 가치에 따라 선택 행위를 하게 된다. 이때 개인은 그러한 선택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지게 될 책무성을 고려하게 되고 동시에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가치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한다. 성인들과 달리 청소년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태

도도 비교적 쉽게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통계청의 조사<sup>7)</sup>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1998년 33.6%에서 2002년에는 25.6%로 줄어들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up>8)</sup> 부모 세대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부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두는 것에 비하여 청소년들은 사랑을 결혼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자녀 출산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도 청소년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책임지고 양육할 자녀를 둔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통하여 부모됨의 의미를 학습하고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부모 모습과 역할을 정립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가족,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되는 방법에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직접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가 있지만 입양 등의 방법을 통한 방법도 있다. 여러 자녀의 부모가 되

2) 김태현, 2005. "가치관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

3) 이상식 외, 2006.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출산·성평등 가치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남궁달화, 2002. 『가치탐구교육론』 한국학술정보원.

5) Hitlin, S. and J. A. Piliavin, 2004. "Values: Reviewing a Dormant 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

6) Hitlin, S. and J. A. Piliavin, 상계서.

7) 통계청, 2003. 『한국의 사회지표, 2003』 통계청.

8) 유계숙·정현숙, 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는 경우도 있지만, 한 자녀만 두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부모됨의 의미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이 어떠한 부모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무자녀 선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3.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관의 실태

#### 1)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관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관 실태조사결과<sup>9)</sup>에 의하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초·중등학생들의 16.8%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2002년도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sup>10)</sup>에서 나타난 25.6%보다 감소하였다. 초등학교생이 14.2%, 중학생이 15.8%, 고등학생이 18.9%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남학생(22.8%)은 여학생(10.4%)보다 두 배 더 많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이 21.5%에 비해 여학생은 41.3%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여학생이 19.8%포인트나 높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과 기

회비용 손실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여학생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등 학생들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전체 92.3%로 대부분의 학생이 결혼 의향을 갖고 있다. 남자는 94.9%, 여자는 89.4%로 남자의 경우가 5.5%정도 높게 나타났다. 결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경향이 높았다. 학생 본인의 결혼 의사에 대하여 학교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이다. 청소년은 부모를 비롯한 성인 세대의 가치관을 전수받는다. 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실제 가족 내에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사이가 좋을수록 학생 자신도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비율이 높다. 부모의 관계가 매우 좋거나 좋은 경우 결혼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수는 93%를 넘었으나 부모의 사이가 나쁠 경우 80%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 2) 초·중등학생의 자녀에 대한 인식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다’라는 학생들

의 응답이 48.2%로 가장 많다.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다’라는 응답을 합하면 75% 이상의 학생들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에서는 남학생(30.8%)이 여학생(23.0%)보다 높았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견해에서는 여학생(21.8%)이 남학생(13.2%)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자녀 필요성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교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결혼의 필요성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이었으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반대로 나타났다.

“장래에 자녀를 둘 생각이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 33.8%,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49.1%로, 83%의 학생들이 자녀를 갖고 싶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2005년도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미혼 남성 93.1%, 미혼 여성 88.7%)보다 낮아졌다(김승권 외, 2005). 오히려 성인보다 학생들이 자녀를 갖겠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녀출산의향에 있어서는 남녀별로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에서는 남자(50.1%)가 여자(47.9%)보다, ‘별로 가

지고 싶지 않다’에서는 여학생의 비율(8.6%)이 남학생(4.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생 26.0%, 중학교 31.1%, 고등학교 39.8% 등으로 초등학교생에서 고등학교생으로 갈수록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등학교생들이 아직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세대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실태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부정적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결혼관과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생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종합하면, 초등학교생의 경우 가치관 형성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한다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면이 강하였다.

### 4. 초·중등학생의 결혼과 자녀 가치관 정립 방안

앞 절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초·중등학생들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매우 낮았으며, 성인보다 낮아졌다. 또한, 가치관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친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형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9) 김태현 외, 2006.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김승권 외, 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원칙과 방향**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정립이란 넓은 의미에서 가치관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관 교육이란 “교사가 아동과 학생들이 가치를 형성하고 가치를 판단하여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sup>11)</sup>이다. 가치라는 것이 개개인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정립이란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특정 가치관을 초·중등학생들이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의 원칙과 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가치관 정립의 원칙**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의 목표는 초·중등학생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초·중등학생들이 결혼·가족·출산의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가치관이 초·중등학생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학생이 친사회적 가치를 습득하고,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통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치관 정립의 방향**

우선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계몽적 태도’를 초·중등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단순히 출산억제 혹은 출산장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가치관 교육의 역기능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가치관의 변화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동을 전망하고 거시적인 사회발전의 틀 안에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초·중등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가치관 정립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가치관 교육은 성인, 교사 중심으로 성인 세대가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선정하여 그것을 초·중등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가치의 내용 보다는 가치화 과정을 중시하며, 교사나 성인보다는 가치를 실제로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초·중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가치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로, 가치관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신념과 선호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개인적 경험과 학습의 결과이다. 초·중등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사회제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의 가치관의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검증되거나 우위가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가치관 교육은 특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학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가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치화 과정을 중시하여야 한다.

넷째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교육은 성인, 즉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의 가치관은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는 가족이나 학교, 이웃, 종교 등을 통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된다. 부모와 교사는 출산억제정책과 가족

계획이 정당화되던 시절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출산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초·중등학생들에게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러한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학생 세대의 결혼·가족·출산 관련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 방안**

**(1) 결혼·가족·출산의 가치에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형성**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결혼·가족·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혼과 가족 관련 가치관에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이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결혼과 가족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식개혁 운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출산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가치관 전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11) 남궁달화, 전계서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사회적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사회적 의식개혁은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사회의 제도적 관행을 해소하는 제도개혁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결혼·가족·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을 도울 경제 및 사회적 지원 정책을 확대·실시한다. 결혼과 가족에 친화적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정책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은 그 적절한 예이다.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불만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초·중등 학생들이 미래 삶에 대하여 불안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경우 결혼·가족·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출산을 담당할 여성의 경우 출산이 또 다른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면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초·중등학생들이 현재의 삶이 즐겁고 미래

의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적을수록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넷째로, 양성 평등과 여성에 대한 권한부여를 촉진함으로써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양성 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양성 평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일과 육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출산과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초·중등학생들에게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가치관 정립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결혼·가족·출산에 관한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학교의 역할은 이미 발달하기 시작한 초·중등학생의 가치를 보충하는 것이다.<sup>12)</sup> 학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련의 가치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결혼·가족·출산의 중요성에 관한 친화적 사회·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다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개편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은 크게 형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풍토가 이들 가치관에 보다 친화적이고, 윤리적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sup>13)</sup>

다음은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교재개발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한다. 가치관 형성은 초·중등학생의 개인적 수준의 덕성에 기초하여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다.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인구교육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한다. 인구교육은 적절한 교육내용의 개발, 체계적인 교과서, 그리고 훈련받은 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구교육 T/F팀을 만들어 인구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교재를 편찬하며, 인구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통하여 결혼·가족·출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초·중등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로,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생활기술을 개발한다. 생활기술이란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믿고 있는 가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up>14)</sup> 생활기술에는 비판적 추론, 위험 분석, 자신의 행동 통제, 심화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상호 보상 관계의 확립, 자신의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 환경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초·중등학생들은 이러한 생활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가치관 등과 가치판단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 5. 결 론

초·중등학생은 미래사회를 책임질 세대이다. 이들은 전통을 계승, 유지,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청소년 시기는 모든 것이 완성되

12) Halstead J. M. & M. Taylor, 2000. "Learning and Teaching about Values: a review of recent research",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30(2).

13) Haydon, G., 2004. "Values education: sustaining the ethical environ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33(2).  
14) UNESCO, 2002. *Learning to be: A holis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values education for human development: Core values and the valuing process for developing innovative practices for values education towar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a culture of peace*. Bangkok: UNESCO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성장해 가고 있는 성인기로의 이행기이다. 가치관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은 다양한 가치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해서 청소년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청소년기에 결혼·가족·자녀(출산)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될 결혼 및 가족가치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까닭에 청소년의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해서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청소년의 성과 연령 등에 따라 가치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의 가치관이 더 부정적이었으며, 고등학생들이 초·중학생들보다 결혼과 출산에 더 친화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과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청소년의 집단별·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청소년의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성인 세대의 가치관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사회와 고립되어 생활하지 않으며, 늘 사회 속에서 부모와 교사 등과 같이

성인들과 어울려 생활한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인 세대와 다양한 모습으로 가치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출산억제정책의 대상자였던 청소년의 부모세대들은 직간접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 노력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란 가치관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은 그 형성이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된다. 청소년 가치관 정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의 변동에 관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결혼과 가족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문헌**